태국의 파이, 민주화의 대나무는 꺾이지 않는다

성공회대 학생들, 투옥 중인 태국 청년운동가를 만나다

글 **이서연** 파이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공회대 학생모임
syai12329@naver.com

대쪽 같은 사람

흔히 '대쪽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불의나 부정에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굳게 지키는 사람을 말한다. 태국에도 '대쪽 같은 사람'이 있다. '파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자투팟 분팟타라락사이다. '파이'는 태국어로 '대나무'라는 뜻이다. 내가 직접 만난 철창 안의 '파이'는 우리의 대나무 같이 올곧고 굳은 의지를 지닌 청년이었다.

지난 5월 18일, 파이 다오 딘은 광주 인권상을 수상했다. 쁘라윳 찬오차 총리에게 수잔 콜린스의 작품 〈헝거게임〉을 통해 저항의 상징이 된 세 손가락 경례를 하고,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며 태국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한 노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파이는 페이스북에 새로운 왕에 관한 BBC의 프로필 기사를 게재했다가, 왕실모독죄 및 컴퓨터범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폭염이 갈증을 부르던 지난 6월 말 감옥에 있는 파이 다오 딘을 만나기 위해 태국을 방문했다. 파이의 가족들은 우리 일행의 면회가 '아시아인 중 최초'의 면회라고 했다.

* 태국의 대나무(파이)

* 파이가 재학 중인 콘깬대학교 정문의 왼쪽

구치소의 안과 밖

파이가 수감되어 있는 콘깬중앙구치소에 도착한 순간부터 사복을 입은 여러 사람이 우리 일행의 사진을 찍었다. 파이를 면회 온 이들을 감시하기 위함과 동시에 일종의 '경고'의 뜻을 지닌다. 구치소를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에 대한 감시가 시작된 것이다. 파이의 가족과 친구들은 이미 수십 차례 경찰에게 사진을 찍혔고, 이제 촬영당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했다. 파이의 부모님은 카메라를 들이대는 사복경찰에게 '우리를 촬영한다면, 우리도 당신들을 촬영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며 카메라를 내밀었다.

* 파이를 무료변론해주고 있는 태국 인권변호사협회 사무실 벽에 붙은 고문중단을 요구하는 포스터

감시가 심한 바깥의 상황만 생각하여 사진 촬영은 당연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면서 면회 장소로 이동했다. 그런데 걱정이 무색하게도, 15분이란 면회 시간이 짧아서인지는 몰라도 면회객에 대한 어떠한 제재나 통제가 없었다. 구치소와 파이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두지 못한 게 후회됐다.

파이, 대나무의 의지

모든 사진에서 그랬듯이 감옥에 있는 파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파이 동생은 "경찰은 파이가 좀 더 슬프고 힘든 표정을 하길 바라지만, 그는 감옥에서도 내내 잡혀가기 전처럼 웃음을 잃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구치소 바깥에서 사진을 찍힐 때, 카메라를 향해 당당하게 V자를 그려주며 웃지 못한 게 못내 아쉬웠다.

파이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다. 감옥에서 무엇을 하며 지내냐는 질문에 그는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면회 후, 나는 그가 감옥에 있었던 지난 6개월 동안 약 30권의 책을 읽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 앞으로 30년 뒤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냐고 묻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계속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졸업 후 변호사가 되어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사는 삶을 그리고 있었다.

파이의 소송 진행 상황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파이의 변호인단의 일원인 파위니 씨를 만났다. 파이는 본 소송 전에 진행되는, 공청회를 통한 사전 심리를 마쳤다. 오는 8월, 왕실모독죄 및 컴퓨터범죄법 위반과 관련한 파이의 본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개 왕실모독죄와 관련한 소송의 경우,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 감형 받는다고 한다. 파이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따라서 최소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변호사의 의견이다.

형법 112조, 왕실모독죄에 대한 현지인들의 생각

지금까지 콘깬대학교에서 파이를 면회 온 교수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파이 부모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지 이들 교수진이 면회 오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가 활동했던 콘깬대학교 법학과 동아리 '다오 딘'은 왕실모독죄에 대한 발언을 삼갔다. 형법 112조, 즉 왕실모독죄에 관한 발언은 단어 하나도 조심스럽다고 했다. 인터뷰 이틀 전에, 경찰이 다오 딘을 급습했다고 한다.

파이의 변호사 말에 따르면, 파이는 태국의 민주화 운동이 침체되어 가던 시기에 활기를 불어넣어준 인물이다. 파이의 활동(세 손가락 경례, 군사정권의 헌법 개정 투표 전날 헌법 초안이 담긴 전단지 배포, BBC 출처의 새 국왕 프로필 기사 게재 등)으로 인해 이전까지 점차 사그라들던 민주화 운동이 다시금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다오 딘과 NDM(New Democracy Movement)

다오 딘과 NDM(New Democracy Movement)는 모두 파이가 활동했거나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다. 이 활동을 통해 파이는 지역 주민들을 돕고 태국의 민주화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파이의 소속 단체와 동료들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해 다오 딘과 NDM의 일원을 만났다.

'다오 딘'은 태국 동북부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위해 활동했다. 이를 인정받아 2013년 'Khon Khon Khon' 상을 받기도 했다. 수상할 당시 파이도 다오 딘의 일원으로 같이 활동했다. '땅에 별'이란 뜻의 다오딘이 의미하는 것이 땅과 별이 평등하게 되는 새 세상을 꿈꾸는 것이라는 한 활동가의 설명처럼, 그들은 홀대받는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NDM'은 연합 조직이다. 따로 조직을 이끄는 수장은 없다. 각 학교별로 소그룹 형태의 지부가 있고, 구성원은 평균적으로 10명 이내이다. 하나의 활동을 조직하면 여기에 참가하고자 하는 지부끼리 모여 활동을 전개한다. 활동은 후원금을 받아 실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NDM 활동가들은 급진적이며 행동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지난 6월 25일, 한때 NDM의 일원이었던 파이의 한 동료가 파이의 석방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가 구금되었다. 다음날 바로 풀려나긴 했지만, 이로 인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파이가 구치소에 수감된 지 약 7개월째인 현재, 태국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이슈는 더 이상 파이에 관한 것이 아니다. 잇달아 새로이 등장하는 20대 투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이의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민주화는 많은 이들의 열망이며, 투쟁은 현재진행형이다. 민누리

* 파위니 변호사(오른쪽)와 그녀와 같이 일하는 태국 인권변호사협회 대표.

* 콘깬대학교 법학과에 걸려 있는 현수막.
"국왕의 말씀을 받드는 정의로운 법"이라고 쓰여 있다.

* 다오 딘의 모임 장소이자 쉼터. 이곳에서 책도 읽고 회의도 하며, 여가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 다오딘과의 인터뷰(위) / NDM과의 인터뷰(아래)